

해양문화연구 창간호 1996년 2월

## 한국 '해양문학' 연구의 현실과 전망

조규익 · 최영호 지음, 『해양문학을 찾아서』(집문당, 1994)

구 모 룡\*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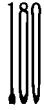
해양학은 미래지향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존자원이 빈약한 반도국가의 현실과 국제화·지구화라는 세계질서 변화를 감안할 때, 해양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추측컨대 우리의 해양학의 위상이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주체적인 자리를 찾는 데 일조할 것이다. 해양학의 전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들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학의 하위 분과학에 속하는 문학 영역에서 그 연구의 현 단계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연구서가 엮어졌다는 점은 시의성(時宜性)이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조규익 교수와 최영호 교수가 함께 엮은 『해양문학을 찾아서』는 한국 해양문학 연구의 성과들을 한곳에 모은 책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한국 해양문학 연구의 현실과 이로부터 찾아지는 여러 전망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 2.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묶여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한국문학체계 속

\* 한국해양대학교 조교수(한국현대문학)



에서의 해양문학의 위상에 관한 연구, 둘째 한국문학 속에서의 해양문학의 전통에 관한 연구, 셋째 근대 이후의 한국문학에서의 바다체험에 관한 연구 등이 그것들이다.

우선 첫째의 주제는 해양문학이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에서 시작하여 한국문학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위상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현상문제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 주제는 해양문학의 특수성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규명하는 것이다. 이 주제를 최영호의 글이 다루고 있다.

두번째 주제는 문헌설화, 「표해록(漂海錄)」類의 고전 작품 그리고 구비문학 등에서 해양체험의 문체와 그것의 문학화 양상에 대해 살피는 것이다. 조규익, 정병욱, 최강현, 강전섭, 이용욱, 윤귀섭, 윤일수, 강남주 등의 글이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논급하고 있다.

세번째 주제는 근대시에 나타나는 ‘바다’ 이미지의 현상학과 바다 체험이 소설 속에 나타나는 양상에 관한 것이다. 특히 시에 있어서는 바솔라르 등의 의식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바다가 시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현상을 고찰하고 있고, 소설의 경우 바다와 관련한 체험이 작품 속에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반영론적으로 살피고 있다. 오세영, 강현국, 신동욱, 정순진, 최갑진 등의 글이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이 책은 본격적인 수준의 한국 해양문학론을 목표로 의도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기왕의 한국 해양문학과 관련된 논의들을 수집하여 논의의 수준을 객관화하고, 그것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편자들의 의도는 그것 자체로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한국문학 속에서 해양문학을 논의한다고 할 때 해양문학의 사실을 밝히는 일 못지 않게 해양문학의 이론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책은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해양문학의 이론은 해양문학만이 갖는 특수성을 통하여 문학현상의 보편성에 이르는 과정을 보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문학론은 단순한 소재주의적 논의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이럴 때 한국 해양문학의 미래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 해양문학론을 염두에 둘 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해양문학의 개념과 그 범위를 세우는 일이며, 다음으로 이러한 일이 한국문학 장르 체계 속에서 해양문학적 사실이 어떻게 자리매김될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해양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 '해양체험의 문학화'라는 점에서 체험이 문학화되는 과정, 혹은 창작방법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해양문학의 개념과 그 범위는 이 책에서 최영호에 의해 살펴지고 있다. 그는 해양문학을 '바다와 그 주변것들이 인간의 삶을 중심축으로 하여 독특한 삶의 체험을 아우르는 것'이라는 '총체적인 관점'을 제안하면서 '바다가 작품의 주제가 된 문학, 바다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거나 배경으로 한 문학' 전부를 해양문학의 범위에 귀속시킨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그동안 우리가 관습적으로 해양문학의 범위에 두었던 여러 문학작품들을 하나의 포괄적인 범주 속에 자리매김해 보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해양문학의 하위영역들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게 된다. 그는 해양문학을 해양 번역문학, 해양 수필문학, 해양 소설문학, 해양 시문학, 해양 가요문학, 해양 전기문학, 해양 기행문학, 해양 민요, 해양 설화문학, 해양 회곡문학, 해양 전쟁문학, 해양 아동문학 등 12개 영역으로 나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체계는 학적 엄밀성의 결여라는 문제를 내포한다. 12개의 영역들은 하위장르(subgenre), 유형(type), 그리고 양식(style) 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는 관습적 용어로 분류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분류의 목적이 질서화와 체계화라고 한다면, 최영호의 해양문학 체계는 이러한 분류의 목적에 충실하기보다 현상의 기술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하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해양문학 분류체계는 그 속에 상충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점은 그가 나눈 12개 영역에서 수식어가 되고 있는 '해양'을 제외시켜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국 해양문학의 전통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체험 사실'이다. 이것은 문헌설화에서부터 「표해록」류에 이르는 해양문학의 전통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라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또한 해양문학의 특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양문학의 개념을 '해양체험의 문학화'에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양체험이 주변적으로 등장하거나 바다 등의 이미지가 작품의 한 구성요소가 되는 경우를 모두 해양문학에 포괄하지 않는 편이 해양문학의 용어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의 정립은 곧 해양문학의 장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된다. '해양체험의 제시'라는 점이 장르 표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문학은 허구적인 측면과 함께 주제적인 측면이 중시되는 문학이다. 특히 전통

적인 해양문학은 대체로 사실의 기록이라는 주제적 성격을 매우 높게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적인 면의 우세는 근대 이후의 해양문학에서 허구적인 것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조규익의 연구에서 보듯이 설화나 고전시가 혹은 고전소설 등에서 해양체험은 대체로 '부분' 혹은 '배경'의 역할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표해록」류에서 해양체험이 '보고문학'의 양상으로 작품의 중심요소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해양문학의 전통은 「표해록」류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조규익이 「표해록」류를 통하여 '바다를 무대로 펼쳐지는 극한 상황에 대한 인간의 대응 방식과 극복의지가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 점에 한국적 해양문학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은, 해양문학의 본질과 관련하여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전통 속에서 해양문학의 가능성이 「표해록」류에 초점이 모아진다고 할 때, 자료 발굴과 소개에 애쓴 정병욱, 최강현, 강전섭, 이용욱 등의 글은 해양문학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글들이라 하겠다.

그런데 해양문학이 '해양체험의 문학화'라는 점을 중시한다고 한다면 「표해설화」나 「표해록」류의 보고문학이 가사화되고 소설화되는 변형 과정에 대한 고찰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 점에서 윤일수의 글이 지니는 의의가 크다 하겠다. 그는 표류담이 작품화될 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유형을 '단순 역경담'과 '복합 역경담'으로 나누어 전자가 '가사화' 되는 반면, 후자가 '소설화'되고 있음을 밝힌다. 이 점은 문학화 과정이 곧 '장르 선택'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다. 윤일수의 글은 조규익이 밝힌 전통 속에서의 해양문학적 '가능성'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의 글은 해양문학이 지니는 주제적인 면과 허구적인 면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이론적 핵심을 짚어낸 것이며 동시에 문학화 과정이 낯것의 '경험'이 아니라 익은 것의 '체험'에 의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문제를 풀고 있다.

문헌설화나 구비문학의 전통에서 해양문학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작품과 해양문학적 요소를 지닌 작품의 경계는 애매할 것이다. 그렇지만 강남주의 글에서 살피고 있는 '어로요'(고기잡이 노래)는 분명히 해양문학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체험이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노동 혹은 여행을 경험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강남주의 글이 '남해 도서지방의 어로요'에 한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글은 구비문학의 자산 속에서 해양문학을 발굴

해 내는 일이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음을 시사한다.

바다 이미지를 작품의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연구들을 해양문학 연구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은 이 책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해양문학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편자의 시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근대시에 있어서 바다의 이미지가 해양체험의 '직접성'과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연구들이 해양문학 연구의 일부로 묶여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시와 관련하여 해양문학을 논한다면 적어도 '해양시'라는 하위장르를 가능하게 하는 변별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지적은 '바다 이기지'를 중심으로 우리시를 고찰하고 있는 오세영, 강현국, 신동욱, 정순진 등의 글을 평가하는 일과는 무관하다. 이들의 글들은 그들대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의식현상학적 연구나 주제비평적 연구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바슐라르 등의 이론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이는 투박함이나 왜곡 등은 지적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본고와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생략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근대시에서 해양시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고, 단지 '바다 모티브'의 등장만을 해양문학의 가능성으로 보는 시각은 논의의 방향을 흐리게 할 염려가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점은 소설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적어도 '해양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식상의 변별성이 전제될 때, 해양문학의 소설적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갑진이 해양문학적 가능성보다 '현대소설이 갖는 바다의 인식지형'을 살피고자 한 것이라 생각한다.

근대 이후의 문학에서 해양문학은 '해양시'와 '해양소설'이라는 구체적 장르를 전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 「표해록」류에서 보인 해양문학적 가능성의 전통이 구체성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양시와 해양소설은 해양체험을 주제적인 측면에서 작품 속에 담아내면서 나름의 문학적 양식화를 이룬 시와 소설에 한정된다. 그리고 해양체험은 바다-배-항해의 세 요소가 중심이 되어 형성된 체험을 의미한다. '바다-배-항해'는 해양시와 해양소설의 중심이 되는 체험요소들이다. 근대 이후의 해양문학은 이들 세 요소들이 상호관련된 체험을 바탕으로 한 문학에 한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정에서 오히려 해양문학의 가능성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바다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해양문학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해양문학을 풍요롭게 하는 (해양문학의 관점에서) 보조적인 연구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조규익, 최영호 두 분 교수가 펴낸 『해양문학을 찾아서』는 한국문학에서 해양문학을 열어가는데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이 책은 하나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일별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객관화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하여 보다 본격적인 해양문학론의 정립이 필요함을 알게 된 것은, 이 책이 제공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